

宗旨의 思想的 考察

朱 賢 哲 *

目 次	
I. 서론	1. 원의 의미
II. 음양합덕	2. 원의 발생
1. 음양사상	3. 원의 극복
2. 덕(德)사상	V. 도통진경
3. 음양합덕의 특성	1. 도의 의미와 특성
III. 신인조화	(1) 유·불·선의 도
1. 신관	(2) 대순사상의 도
2. 신과 인간의 관계	2. 도통의 방법
3. 인존사상	3. 도통진경의 실상
IV. 해원상생	VI. 결론

I. 서론

종교사상이 실천적·이론적으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종교가 주창하는 사상적 이념으로서의 종지(宗旨)와 목적(目的) 그리고 신조(信條)를 필요로 한다. 대순사상(大巡思想)의 교리개요(敎理概要)는,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大巡眞理)를 종지(宗旨)로 하여 성(誠)·경(敬)·신(信)의 삼법언(三法言)으로 요체(要諦)를 삼고, 안심(安心)·안신(安身) 이율령(二律令)으로 수행(修行)의 훈전(訓典)을 삼아 윤리도덕(倫理道德)을 숭상(崇尚)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根本)으로 하여 인간개조(人間改造)와 정신개벽(精神開闢)으로 포덕

* 문학박사

천하(布德天下)·구제창생(救濟蒼生)·보국안민(輔國安民)·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建設)을 이룩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 이 가운데에서 이 글의 논점(論點)이 되는 종지는 그 종교사상을 집약하고 함축하여 나타낸 것으로 한 종교의 중심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종교사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출발은 항상 종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사상적인 골격은 종지를 토대로 하여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²⁾

그러면 이 글의 중심이 되는 종지에 대한 논점에 대해서 각 장(章) 별로 간략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음양합덕사상의 장(章)에서는 음양사상과 덕(德) 사상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와 특성을 살펴 본 후, 음양합덕에 나타난 원리와 그 안에 내포된 사상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신인조화의 장(章)에서는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관(神觀),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신인조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존사상(人尊思想)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해원상생의 장(章)에서는 원(冤)의 의미와 특성, 원의 발생원인, 원 극복의 방법에 대해서 논(論)하였다. 도통진경의 장(章)에서는 먼저 유·불·선에서 말하는 도(道)의 특성과 대순사상의 도(道)의 특성을 고찰한 후, 도통의 방법과 도통진경의 실상에 대해서 밝혔다. 이상의 내용을 논(論)함에 있어 이전에 발표한 줄고(拙稿) 「神人調化에 관한 연구」, 「冤의 본질적 의미에 관한 연구」, 「道通眞境의 實踐的 背景」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음양합덕

1. 음양사상

음양합덕(陰陽合德)은 ‘음과 양의 덕을 합한다’는 의미이다. 음양합덕은 음양(陰陽)과 합덕(合德)의 두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명사로서, 음양합덕을 논하기 위해서는 음양사상(陰陽思想)과 덕사상(德思想)으로 구분한 다음, 다시 이 사상을 종합하여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1) 『대순진리회요람』, 14쪽

2) 鄭大珍, 「陰陽合德의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 2집, 대순사상학술원, 포천 1997, 1쪽

음양사상(陰陽思想)은 유가(儒家)와 도가(道家)를 중심으로 연구 발전되었는데, 먼저 음양사상의 발전단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고 넘어가기로 하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이전에는 단지 음(陰)에 해당되는 ‘會’는 구름이 가려 해를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하였고, 양(陽)에 해당하는 ‘易’은 구름이 걷혀 해를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 후 춘추전국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음양이 만물을 이루는 본체가 된다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철학적인 이론상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가시적인 자연 사물의 설명방식에 국한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자연 사물의 변화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음양(陰陽)이라는 이기(二氣)가 있고, 이기의 변화가 자연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음양개념이 보다 근원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춘추전국시대 이후에 나온 것으로 추측되는 『역전(易傳)』에 의해서다. 『易傳』은 음양의 개념으로 천지자연의 변화 뿐만 아니라 인간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 방식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전일적인 존재로 보는 것으로 자연과 인간이 이원화(二元化)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생성 변화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³⁾ 그러다가 송대(宋代)에 유학이 발전하면서 음양사상은 도덕적인 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까지 전개되었다.

음양사상(陰陽思想)은 동양사상 전반에 걸쳐 대두되는 이론으로, 우주나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과 생성(生成)·소멸(消滅)을 음양의 법칙에 따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음양사상의 특성은 음과 양이 서로 정반대의 개념이면서도 상호보완적(相互補完的)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소옹(邵雍)은 “양은 홀로 설 수 없고 반드시 음을 얻은 후에 설 수 있는 고로 양은 음을 기(基)로 삼고, 음은 스스로 나타날 수 없어 반드시 양을 얻은 후에 나타나는 고로 음은 양으로 창(唱)을 삼는다”⁴⁾고 하였다. 이것은 음과 양의 관계가 ‘서로 대립(對立)하면서도 서로 의존(依存)하는 관계’, ‘상대가 존재(存在)함에 의하여 비로소 자기가 존재하는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음(陰)과 양(陽)

3) 劉勝鐘, 「陰陽合德의 淵源과 意味」, 『대순사상논총』 제 2집, 대순사상학술원, 포천 1997, 305쪽 참조

4) 邵雍, 『觀物』外篇 上

“陽不能獨立 必得陰而後立 故陽以陰爲基 陰不能自見 必得陽而後見 故陰以陽爲唱”

은 서로 어느 한쪽을 부정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정함으로써 확인이 될 수 있는 필연적(必然的)인 관계(關係)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음양의 속성에 대해서는 주렴계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무극이 태극이다. 태극이 동해서 양을 낳고 동이 극하면 정이 된다. 정하여 음을 낳고 정이 극하면 다시 동한다. 한 움직임(動), 한 고요함(靜)이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으로 나뉘어 양의(兩儀)가 선다”⁵⁾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음양(陰陽)을 낳는데, 음(陰)이 극(極)하면 양(陽)이 되고 양(陽)이 극(極)하면 음(陰)이 된다는 말이다. 음과 양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음(陰)에 양(陽)의 속성이 있고 양(陽)에 음(陰)의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음양사상과 관련된 상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음양사상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순자(荀子)』에 보면, 별들이 따라 돌고 일월이 번갈아 비추며 네 계절이 교체하는 등 모든 것이 음양의 변화라고 하여⁶⁾, 사계절이 순환하고 눈비가 내리고 꽃이 피고 곡식과 열매가 맺는 등 모든 자연의 현상을 음양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음양이 만물의 근본이 된다는 사상이 대두되는데, 소옹(邵雍)은 “일음일양은 천지의 도(道)인데 물(物)은 음양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음양으로 말미암아 이룬다”⁷⁾라고 하여, 음양이 천지만물의 근본임을 설명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도 천지만물의 이치가 음양에 있으며 생살(生殺)의 도(道) 또한 음양에 있다고 봄으로써 기존의 음양사상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천지의 일은 모두 이 음양속에서 이루어지고, 만물의 이치는 모두 이 음양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신인도 음양으로써 조화를 이룬다.”⁸⁾

5) 周濂溪, 『太極圖說』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6) 『荀子』, 天論篇 참조

“列星隨旋 日月遞炤 四時代御 陰陽大化”

7) 邵雍, 『觀物』外篇 下

“一陰一陽 天地之道也. 物由是而生由是而成子也”

8) 『전경』, 교운 2장 42절 陰陽經

“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逐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

“음과 양에 있어 만사는 음에서 일어나 양을 펼치니 먼저 어두운 음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밝은 양을 보며, 매사에 먼저 시발하는 곳을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일은 음에서 일어나 양으로 나타나고 양으로 드러나면 음은 숨는다. 모름지기 먼저 음양을 살펴야 한다. 음양은 물과 불이다(...) 음이 쇠하면 양이 생하고 양이 쇠하면 음이 생하는 생살(生殺)의 도(道)가 음양에 있다.”⁹⁾

음양사상은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주역』에 “하늘과 땅이 어울려서 만물이 이루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정기를 합해서 만물이 살게 된다”¹⁰⁾고 하여, 양(陽)인 하늘과 음(陰)인 땅, 양(陽)인 남자와 음(陰)인 여자가 합함으로써 만물이 생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또 “건도는 남자를 이루고 곤도는 여자를 이루어 건은 근본의 시작을 맡아 있고 곤은 만물의 육성을 성취한다”¹¹⁾고 하였다. 건(乾)은 양(陽)이고 곤(坤)은 음(陰)으로 표현된다. 건(乾)인 남성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곤(坤)인 여성은 생명을 화육하고 완성하는 작용을 한다는 우주 생성의 원리 곧 역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

음양사상은 도덕에 대해서 설명한다. 『주역』에 “일음일양을 일컬어 도라 하는데, 그것을 이은 자는 선(善)하고 그것을 이룬 자를 성(性)이라 한다”¹²⁾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선(善)하다고 한 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이고, 성(性)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의 바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과 음양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造化”

9) 『전경』, 제생 43절

“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10) 『周易』 繫辭下傳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媾精 萬物化生”

11) 『周易』 繫辭上傳

“乾道成男 坤道成女 乾知大始 坤作成物”

12) 『周易』 繫辭上傳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2. 덕(德)사상

음양합덕(陰陽合德)에서 합덕이란 '덕을 합한다'는 의미이다. 덕(德)이란 국어사전에는 도덕적·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또는 그 인격으로써 남에게 영향·감화를 미치는 일, 또 일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원인이라는 뜻으로 남에게 도움이나 은혜 또는 연유를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되어 있다.¹³⁾ 『도교사상사전(道敎思想辭典)』¹⁴⁾을 보면, 덕(德)이란 도덕(道徳)이나 품덕(品德)으로서 말과 행동이 적절하고 마땅하여 밖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안으로는 마음에 얻은 바가 있음을 의미하고, 도(道)의 덕행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덕(德)의 의미는 사람이 지켜나가야 할 도리로써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설명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음양합덕(陰陽合德)이라고 할 때의 '덕(德)'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계속해서 『도교사상사전』에 나와 있는 덕(德)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덕(德)이란 사물이 도(道)로부터 얻은 바의 특수한 규율이나 특성을 가리킨다. 노자(老子)는 “도(道)는 만물을 생성하고 덕(德)은 만물을 번식시켜 만물을 생장케 하고 발육시키며, 만물을 열매 맺고 익게 하며, 만물을 사랑하여 기르고 보호하며, 생장시키나 소유하지 않고, 도와 주기는 하지만 공을 뽑내지 않으며, 이끌어 주기는 하나 주재하고 통제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그윽한 덕이라고 한다”¹⁵⁾라고 하였다. 덕(德)은 도(道)를 체현하여 만물을 생성하고 기르지만, 스스로를 위해서 소유하지 않고, 만물을 함양하나 스스로의 능력을 뽑내지 않으며, 만물을 성취케 하나 주재하지 않는다. 그것의 만물에 대한 생장·발육작용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덕(德)의 특징이다.¹⁶⁾ 『장자(莊子)』에는 “물(物)이 생(生)을 얻는 바의 것을 덕(德)이라고 이른다”¹⁷⁾, 또 “형(形)은 도(道)가 아니면 생(生)할

13) 운평어문연구소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서울 1997 참조

14) 金勝東 編著, 『道敎思想辭典』, 釜山大學校出版部, 1996

15) 老子, 『道德經』 제 51장

“道生之 德畜之 長之育之 亭之毒之 養之覆之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 是謂玄德”

16) 張立文(權瑚 譯), 『道』, 東文選, 서울 1995(이하 책명만 표기함), 67쪽

17) 『莊子』, 天地篇

“物得以生 謂之德”

수 없고, 생(生)은 덕(德)이 아니면 밝아질 수 없다”¹⁸⁾고 하였다. 『관자(管子)』 심술상(心術上)에서는 덕(德)이란 도(道)의 집이며, 덕(德)이란 얻음(得)이고 얻음이란 얻어서 그러하게 된 것을 이룬다고 하여, 도(道)의 구체적인 사물에서의 표현이 바로 ‘덕(德)’이고, ‘덕(德)은 구체적인 사물이 얻어서 그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덕(德)이란 천지음양(天地陰陽)이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공능(功能)을 가리키는데,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도 “도(道)가 있으니 도에 덕(德)이 있고, 덕에 화(化)가 있고, 화에 육(育)이 있고, 육에 창생(蒼生)이 있다”¹⁹⁾라고 하여 기존의 덕(德)에 대한 해석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도(道)는 체(體)이고 덕(德)은 용(用)으로서 ‘덕(德)’은 천지만물이 발전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3. 음양합덕의 특성

음양합덕(陰陽合德)은 음과 양의 이상적인 결합을 의미한다. 음양합덕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을 원리(原理)로 하고, 그 안에 조화(調化), 평등(平等), 상생(相生)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정음정양(正陰正陽)은 음과 양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대등한 상태나 위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정음정양은 균형(均衡)과 평등(平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안정을 이루며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또 정음정양은 『주역』에서 말하는 한번 음(陰)하고 한번 양(陽)한다는 일음일양(一陰一陽)²⁰⁾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정음정양의 원리에 따라 상제께서 공사를 보신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자.

상제께서 어느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

18) 앞의 책, 같은 곳
“故形非道不生 生非德不明”

19) 『전경』, 교운 1장 66절
“曰有道 道有德 化有育 育有蒼生”

20) 『周易』繫辭上傳

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응종은 두 점, 경수는 세 점, 내성은 여덟 점, 경석은 열두 점, 공신은 한 점을 찍었는데 아홉점이 없으니 「자고로 일남 구녀란 말은 알 수 없도다」고 말씀하시고 내성에게 「팔 선녀란 말이 있어서 여덟 점을 쳤느냐」고 묻고 응종과 경수에게 「노인들이 두 아내를 원하나 어찌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후천에서는 새로운 기력이 나지 아니하리까」고 되물으니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무슨 아내를 열 둘씩이나 원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열두 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상제께서 다시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을 건너시고 공신을 돌아보면서 「경석은 열 둘씩이나 원하는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건곤(乾坤)이 있을 따름이오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고 하시고 공사를 잘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공신이 말씀대로 봉행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건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말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주셨도다.²¹⁾

건곤(乾坤)은 천지(天地)를 의미하며 각각 양과 음을 대표한다. 위의 내용에서 ‘건곤(乾坤)이 있을 뿐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건(乾) 하나의 곤(坤)은 존재할 수 있어도 하나의 건(乾)에 두 곤(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것은 곧 일음일양(一陰一陽)을 가리킨다.

음양합덕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먼저 음양합덕과 인간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것은 주로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를 정음정양의 원리에 따라 남녀가 평등하게 되는 내용이다.

종도들의 음양도수를 끝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五만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날 박 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는 청춘 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처결하지 못 할

21) 『전경』, 공사 2장 16절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처결하였노라」고 이르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오만년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도다.²²⁾

위의 구절은 과부와 홀아비의 관계를 정음정양의 원리로 설명한 구절이다. 선천에는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수절하여 일생을 헛되게 보냈으나 상제께서 공사를 보신 후로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개가케 되었다. 또 대장부(大丈夫)나 남장군은 있었어도 대장부(大丈夫)나 여장군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제께서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夫)’²³⁾, ‘남장군 여장군’²⁴⁾이라 하여 공사를 보신 것은 남녀의 관계 즉, 음과 양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게 해 주신 것이다. 남존여비(男尊女卑)라는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상태를 남녀평등(男女平等)이라는 정음정양(正陰正陽)의 상태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음양합덕(陰陽合德)이 이루어 지려면 정음정양의 원리에 따라 남녀가 평등한 상황이 되어야 한다. 남녀평등은 남자와 여자의 조화, 상생을 말하며 더 나아가 음양조화와 음양상생을 의미한다. 또한 음양합덕은 인간의 경우 남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서(嫡庶)의 차별이나 반상(班常)의 구별, 오늘날에는 노사의 불평등과 같은 상극적 상황을 적서와 반상, 노사가 평등한 상생적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사상이기도 한다.

음양합덕과 자연현상과의 관계를 알아 보자. 『전경』에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²⁵⁾고 하여, 양(陽)인 하늘과 음(陰)인 땅이 억음존양(抑陰尊陽)이 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늘과 땅이 정음정양(正陰正陽)이어야 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또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으며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²⁶⁾라고 하였는데, 노천(老天), 박토(薄土), 역풍(逆風), 날의 수한(水旱), 추운 때와 더운 때 등은 음

22) 『전경』 공사 2장 17절

23) 『전경』 교법 2장 57절

24) 『전경』 권지 1장 17절

25) 『전경』, 교법 1장 62절

26) 『전경』, 교법 3장 6절

양의 부조화로 말미암은 것이며, 명천(明天)이나 후토(厚土), 순풍(順風)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으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었음을 말한다.

또한 『전경』에는 수기(水氣)와 화기(火氣)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뒷날 변산 같은 큰 불구덩이로 이 세계가 타버릴까 하여 그 불을 묻었노라”²⁷⁾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화기(火氣)가 수기(水氣)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해서, 화기(火氣)를 약화시키기 위해 수기(水氣)를 돌리는 공사를 보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기(火氣)와 수기(水氣), 즉 음과 양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또 『전경』에 “지금은 천지에 수기가 돌지 아니하여 묘를 써도 발음이 되지 않으리라. 이후에 수기가 돌 때에 땅기운이 발하리라”²⁸⁾하여 풍수지리(風水地理)에 대한 언급이 엿보인다. 풍수지리(風水地理)에 의하면, 땅은 대개 5종류(五氣地)로 분류된다. 5기지(五氣地)란 생기지(生氣地)·살기지(殺氣地)·사기지(死氣地)·퇴기지(退氣地)·패기지(敗氣地)를 일컫는데, 이것은 수(水)와 화(火) 즉, 조습(燥濕)의 배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조습(燥濕)의 배합이 50 : 50이면 생기지(生氣地), 100 : 0이면 살기지(殺氣地), 반대로 0 : 100이면 사기지(死氣地), 보통 35 : 65면 퇴기지(退氣地), 65 : 35면 패기지(敗氣地)라 한다. 여기서 생기지(生氣地)가 바로 진혈(眞穴) 즉, 흔히 말하는 명당(明堂)이다. 명당(明堂)은 조습(燥濕)이 50 : 50, 정음정양의 상태로써 음양합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음양합덕을 이룬 곳이 명당(明堂)인 것이다.

Ⅲ. 신인조화

1. 신관

모든 종교가 신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신은 종교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교리체계에서 신관(神觀)은 그 중심사상이 된다. 어느 한 종교에 대한 신관을 논할 때, 유일신론(唯

27) 『전경』, 공사 3장 1절

28) 『전경』, 공사 3장 20절

一神論), 다신론(多神論)²⁹⁾, 범신론(汎神論) 등으로 구분하여 그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대순사상의 신관³⁰⁾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기존의 종교적 용어로는 정의를 내리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용어들은 서양에서 기독교의 유일신론을 중심으로 다른 종교와의 차별화를 위해 만들어지고 개념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대순사상에서 언급되는 신이 타종교에 비해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순사상이 상제를 절대적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일신론, 신명이나 신장류는 다신론, 신은 다신론이며 범신론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고신인 상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유일신론보다는 단일신론(單一神論)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유일신론이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며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기독교)만을 신앙하고 그 외의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데 비해, 단일신론은 모든 신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최고신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또 상제의 주재하(主宰下)에 있는 신명, 신, 신장, 귀신이 다신론이나 범신론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그러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신론이나 범신론이 여러 신들을 설정하고 인간이 이 신들을 모두 신앙의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비해, 대순사상의 신명, 신장, 신, 귀신들은 모두 다 신앙의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순사상에 대두되는 신(광의적 의미)은 최고신인 상제와 상제의 주재하(主宰下)에 있는 신(협의적 의미)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또 대순사상의 신관(광의적 의미)도 크게 최고신적인 관점에서의 상제관과 상제의 주재하에 있는 신적인 관점에서의 신관(협의적 의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상제관은 신인조화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협의적 의미에서의 신관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29) 다신론은 종교학상 동시에 다수의 신을 인정하는 신앙태도이다. 일신론과 대조되나 실제적 구분은 명백치 않다.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 이외의 종교는 거의 모두 다신론적이라 할 수 있다.

30)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은 상제(上帝)님이며,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 등으로도 불리운다. 이 글에서는 논문인 점을 감안하여 '상제'라고 호칭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관점을 상제관이라 하겠다. 또 특별한 설명없이 '신'이나 '신관'이라고 할 때는 협의적 의미에서의 신이나 신관을 의미한다.

신명, 신, 신장, 그리고 귀신의 개념은 불분명하다. 그 이유는 그것이 기존의 경우처럼 초월적 대상이나 신앙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어떠한 특정 대상을 신격화하고 거기에 초월적인 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강한 개성이 필요한데, 대순사상에서는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신관은 기존의 종교에 나타난 신관의 특징을 모두 혼용하는 태도를 지니면서도 그 체계적 질서를 다양하게 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일신적인 성격과 다신론적인 성격, 그리고 범신론적인 성격을 지니는 복합적인 신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명과 신은 혼용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자간의 명확한 구별은 쉽지 않다.³¹⁾ 다만 문헌상으로 나타난 신명은 좀 더 포괄적이며, 긍정적인 기능과 상위적인 차원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면 신은 다양성과 함께 하위적인 위치와 더불어 부정적인 내용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신명과 신은 애매하지만 구별된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그러면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관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신명은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신명은 인간의 생사(生死)나 언사(言事)에 관계하여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죄의 유무를 판정하는 심판자로 나타난다.³²⁾ 둘째, 신명은 자유로운 이동과 왕래가 가능하며³³⁾, 스스로의 자율권과 능동성을 지니고 있지만³⁴⁾ 상제의 명(命)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로 나타난다.³⁵⁾ 셋째, 신명은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한 구제의 대상이자³⁶⁾ 천지공사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 존재이다.³⁷⁾ 넷째, 신명은 인간에게 복록과 인간의 대소사에 관여하며, 인간의 개조(改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서,³⁸⁾ 인간처럼 인격성을 지니는 존재이기도 하다.³⁹⁾

31) 김탁, 『중산교학』, 미래향문화, 서울 1992, 89-94쪽 참조

32) 『전경』, 행록 1장 29절·4장 20절·5장 4절, 교법 1장 7·29절·3장 5·24절, 예시 67절 참조

33) 『전경』, 행록 3장 61절·행록 4장 11절, 예시 25·29·69절 참조

34) 『전경』, 행록 1장 29절·4장 11절, 공사 2장 4절, 교운 1장 9절 참조

35) 『전경』, 교운 2장 28절, 교법 3장 4절·44절, 권지 1장 9절, 예시 25·29절 참조

36) 『전경』, 공사 1장 1·9·29, 교운 2장 57절·예시 10절 참조

37) 『전경』, 행록 4장 8절, 공사 1장 10절·2장 19절, 교운 1장 8절·2장 28절, 교법 3장 18절, 예시 25·29·69절 참조

38) 『전경』, 행록 4장 11·20·40절, 공사 1장 24절·3장 5절, 교운 1장 9절, 교법 1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명은 인간에 비해 초월적인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인격적인 면을 갖추고 있는 존재이다. 신명은 인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그 본래의 직능적 특성도 갖추고 있다. 또 상제의 명(命)에 의해 천지의 일과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존재이며, 인간과 더불어 구제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도 인간과 같은 영역에서 해석되는 존재이며, 해원의 대상이자 해원과 구제를 통해 완성을 추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신인조화라는 거대한 명제를 신과 인간에게 적용시켜 양자를 보다 더 초월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창출해 내는 대순사상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신관은 인간과의 관련성 속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2. 신과 인간의 관계

신과 인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종교에서는 신이나 인간을 별개로 취급하거나 또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침으로써, 신과 인간의 분리를 가속화시켰다. 기성종교에서 신과 인간이 단절된 것과는 달리, 대순사상에서 신은 최고신(最高神)인 상제의 사역하(使役下)에 있는 존재로서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인간이 죽으면 혼이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기⁴⁰⁾ 때문에, 신은 인간존재의 또 다른 존재방식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신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전경』에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에게 있어 추기요 문호요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들락날락하며 도로를 오고가는 것은 신이다”⁴¹⁾ 라고 하여, 인간의 본질은 마음이고 마음을 드나드는 것은 곧 귀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과 교류가 가능한 존재로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순사상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라고

장 42·55절·2장 17절·3장 4·24절·예시 8절 참조

39) 『전경』, 행록 5장 4절, 공사 1장 29절·2장 4절·19절, 교운 1장 9절, 교법 1장 17·42절 참조

40) 『전경』, 교법 1장 50절 참조

41) 『전경』, 행록 3장 44절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공재적(共在的)·음양적(陰陽的)·대대적(對待的)인 관계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신과 인간은 각기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공재적(共在的) 관계에 있다. 신이 인간이 먹는 대로 흠향(歆饗)한다⁴²⁾는 것은, 신이 인간과 존재방식은 다르지만 삶의 양식(樣式)은 유사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육체를 가진 가시적(可視的)인 존재인데 비하여 신은 육체를 갖지 않은 불가시적(不可視的)인 존재이다. 그러나 신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또 상복(喪服)은 죽은 귀신이 지은 것이라는⁴³⁾ 말은 인간의 손을 빌어 신의 의지에 의해서 상복을 만든 것으로 이것은 인간과 신이 공존(共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신이 인간의 마음을 드나든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특정한 신이 항상 인간과 함께 상존(常存)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그 닻은 바와 기국(器局)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게 되기 때문에⁴⁴⁾, 신은 인간의 기국(器局)에 맞춰 일정기간 동안 공존(共存)하다가 옮겨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국(器局)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도량(度量)과 재간(才幹)을 의미하는 것이나,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기국은 수양과 수도의 정도에 따라 신명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경』에서 전쟁사를 읽지마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쟁에 승리한 자의 신은 춤을 추지만 패한 자의 신은 이를 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이 응(應)하는 까닭이니⁴⁵⁾, 신은 인간과 아주 가까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신과 인간은 음양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음과 양의 작용과 속성 그리고 음양사이의 관계를 밝히므로써, 신과 인간의 관계는 자연히 드러나게

42) 『전경』, 교법 1장 49절 참조

43) 『전경』, 교법 1장 48절 참조

44) 『전경』, 교법 2장 17절

45) 『전경』, 교법 2장 23절 참조

될 것이다. 음양은 우주만물 중 서로 상대적인 위치나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다. 신은 음이고 사람은 양이다. 암컷은 음이고 수컷은 양이다. 안은 음이고 밖은 양이다.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이다. 숨은 것은 음이고 나타난 것은 양이다. 앞은 양이고 뒤는 음이다.⁴⁶⁾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양이고 신은 음이다. 그런데 이 음양이 합해진 후에 변화의 도(道)가 있다⁴⁷⁾고 한 것은 신인조화사상(神人調化思想)이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원리와 같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로 음양관계에 있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천지의 일은 모두 이 음양가운데 이루어짐이 있고 만물의 이치도 모두 이 음양가운데 이루어진다.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신과 인간도 음양으로써 조화(造化)를 이룬다. 신과 인간이 화합해서 모든 일을 이루고 신과 인간이 합쳐져 모든 공을 이룬다. 신명은 인간을 세우고 인간은 신명을 세운다. 음양이 서로 합쳐지고 신인이 서로 통한 후에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신사(神事)가 성공하고 인사(人事)가 성공한다. 인사(人事)가 성공하고 신사(神事)가 성공한다.⁴⁸⁾ 이렇게 신과 인간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화합을 할 때 만사가 이루어지며, 음양이 합쳐지는 것처럼 신과 인간이 서로 통해야 신사(神事)와 인사(人事)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신과 인간의 조화를 음양의 원리에 맞춰 강조한 것으로, 신인조화사상은 음양합덕·음양조화·음양상생의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세째, 신과 인간은 대대적(對待的)인 관계에 있다. ‘대대(對待)’라는 용어는 본래 음과 양을 구조적으로 표현한 말로써, ‘대립(對立)하면서 서로 끌어당긴다’, ‘상대가 존재함에 의하여 비로소 자기가 존재한다’, ‘상호 대립하면서

46) 『전경』, 교운 2장 42절, 陰陽經 참조

“乾定坤順乾陽坤陰 日行月行日陽月陰 有神有人神陰人陽 有雄有雌雌陰雄陽 有內有外內陰外陽 有右有左左陰右陽 有隱有顯隱陰顯陽 有前有後前陽後陰(...)”

47) 『전경』, 제생 43절 참조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48) 『전경』, 교운 2장 42절

“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造化(...)皆是陰陽中有(...)神人和而萬事成神人合而百工成神明俟人人俟神明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地道成神事成而人事成人事成而神事成(...)”

상호 의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대대(對待)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볼 때, 그 특성상 양자는 수수적(授受的)·수혜적(受惠的)·상호의존적(相互依存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수수적(授受的) 관계란 신과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로서, 인간계에서 벌어진 일이 천계에, 천계의 일이 인간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 행위가 신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신의 작용이 인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둘째, 신과 인간은 수혜적(受惠的)인 관계에 있다.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많은 복(福)과 혜택(惠澤)을 주고⁴⁹⁾, 신은 인간 자신이 도를 닦은 정도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호위해주며, 인간이 공부를 하면 신명은 이에 응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호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⁵⁰⁾ 셋째, 신과 인간은 상호 대립적이기도 하지만 상호 의존적(依存的)인 관계하에 놓여 있다. “신은 사람이 없으면 후에 의탁할 곳이 없고 사람은 신이 없다면 앞에서 인도해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 (...) 신명은 인간을 세우고 인간은 신명은 세운다”⁵¹⁾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과 인간은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신이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므로써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 만일 양자(兩者) 중 어느 한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양자는 상대가 존재함에 의하여 비로소 자기가 존재하는 관계,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므로써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관계, 결국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관계하에 있는 것이다.

3. 인존사상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신은 진리의 표준이며 인간은 그 진리에 합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신과 인간이 본래 그 근본이 하나이며 신의 일이나 인간의 일이 존재방식은 다르지만 그 이치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여러 번 밝힌대로, 신과 인간은 음양

49) 『전경』, 교법 2장 36절 참조

50) 『전경』, 교법 2장 17절

51) 『전경』, 교운 2장 42절, 『陰陽經』

“神無人後無托而所依人無神前無導而所依(...)神明俟人人俟神明”

적 관계로서, 신인조화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원리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이 우주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서로 음양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인간세계의 질서는 곧 신의 세계의 질서와 합치되어 운행된다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⁵²⁾

이것은 신인조화라는 용어의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조화(調化)’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인 ‘조화(調和)’나 ‘조화(造化)’와는 그 용례가 다르다. 조화(調和)는 ‘고를 조(調)’와 ‘온화할 화(化)’의 합성어로서 ‘고르게 하여 알맞게 맞추다’, ‘서로 모순됨이 없이 잘 어울리게 한다’는 의미이다. 또 ‘조화(造化)’는 ‘지을 조(造)’와 ‘될 화(化)’의 합성어인데, 이는 ‘천지 자연의 이치를 가리키는 말로 모든 물건을 만들어 기른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신통하게 된 사물’을 가리키는 말로 나타난다.⁵³⁾ 대순사상에서 조화(調化)라는 말은 기존의 용어인 조화(調和)와 조화(造化)를 모두 포괄한 새로운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신과 인간은 조화가 가능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신인조화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 가능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전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상제께서는 신명으로 하여금 인간의 가슴속이나 뱃속 그리고 마음속에 드나들게 하여,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라도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시겠다고 하셨다.⁵⁴⁾ 이것은 신인조화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신명을 인간에게 출입케하여 인간을 개조한다는 것은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 신이 대등한 입장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속에서 신과 인간의 성숙이 전제될 때, 인간과 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인조화의 특징은 인존사상(人尊思想)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전경』에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人尊時代)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⁵⁵⁾, 또 “선천에는 모사재인(謀事在人)하고 성사재천(成事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재천(謀事在天)하고 성사재인(成事在

52)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대순사상논총』 제 1집, 대순사상학술원, 포천 1996, 5쪽 참조

53) 金正泰, 「大巡眞理의 宗旨에 관한 研究」, 『대순사상논총』 제 1집, 342-343 참조

54) 『전경』, 행록 3장 44절, 교법 3장 1절·4절, 예시 7절 참조

55) 『전경』, 교법 2장 5절

人)이니라”⁵⁶⁾하여 인존사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인간은 기존의 일반적인 인식의 차원을 달리 하고 있다. 즉,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을 천·지·인 삼계의 우주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을 삼계의 주체적인 존재로까지 승화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 나타난 인간관의 특징은 인존사상(人尊思想)이라는 새로운 사상의 출현과 함께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존사상(人尊思想)이란 인간을 단순히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우주적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천·지·인 삼계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인식이다. 인존사상이라는 대순사상의 새로운 인간철학은 인간에 대한 인식자체를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인간은 인간 외에 타존재나 세계를 지극히 경외(敬畏)와 신비의 대상으로만 파악해 왔었다. 이러한 사실은 ‘천존(天尊)’ 과 ‘지존(地尊)’이라는 용어가 말해 주듯이, 인간은 하늘과 땅을 지극히 존엄하고 신성한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이 천·지·인 전체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유기적 관계체(關係體)라면, 인간도 마땅히 ‘인존(人尊)’이 되어야만 대등한 논리일 것이다. 따라서 인존사상은 인간을 새로운 우주질서의 변화와 전개를 통해 인간가치를 재정립하고 인간의 위상을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존사상(人尊思想)은 인간이 전체구조 즉, 삼계(三界)의 주체자로서 우주만유를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질적인 변화를 말해 주는 대순사상 인간관의 커다란 특징일 것이다.

『전경』에 “사람이 없다면 천지도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사람을 낳고 쓰며”⁵⁷⁾, “하늘과 땅이 있으되 해와 달이 없으면 빈 껍질이요, 해와 달이 있으되 그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⁵⁸⁾라고 하여, 인간이

56) 『전경』, 교법 3장 35절

57) 『전경』, 교법 3장 47절

“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用人”

58) 『전경』, 예시 21절

“天地無日月空殼 日月無知人虛影”

천지인 삼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실체이자 요소이며, 삼계(三界)는 결코 서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없는 관계체로서,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존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존재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암시하기도 한다. 결국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인간 삶의 목적과 의미는 인존(人尊)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IV. 해원상생

1. 冤의 개념

원(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유사한 개념인 원(怨)과 한(恨)의 개념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원(怨)과 한(恨)의 차이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원(怨)은 대상지향적(對象指向的) 감정으로서 그 대상의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노, 증오, 적개심, 보복 등의 감정이 수반되지만, 한(恨)은 비대상지향적(非對象指向的) 감정으로서 밖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향해진 자책이 섞인 좌절의 심리상태로, 응어리지어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 ‘恨’자를 파자(破字)해 보면 한(恨)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 恨은 마음을 뜻하는 心(마음 심)과 가만히 멎어 있다는 뜻인 艮(머무를 간)이 결합되어 ‘마음속의 상처를 가만히 간직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원(怨)은 상대방에 대한 보복의 감정이 수반되어 적극적(積極的)이고 가혹적(加虐的)인데 반해, 한(恨)은 억울함과 분노는 있으나 무기력감, 무능력, 비애, 후회, 열등감 등으로 인해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한 채 단념하거나 체념하는 소극적(消極的)이고 자화적(自虐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한(恨)은 누리는 자의 말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자의 말이며, 극복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 극복하지 못하는 자의 말이다.⁵⁹⁾ 다시 말해서 한(恨)은 강한자의 소유가 아니라 약한자의 소유이다. 강자가 더 강해지려고 하다가 생긴 한(恨)은 한(恨)이 아니라 욕심(慾心)이요 탐욕(貪慾)인 것이다.

59) 최하림, 「恨에 대한 성찰」, 「恨의 이야기」, 청노루, 서울 1988, 14쪽

다음은 원(冤)과 원(怨)의 차이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 두 개념은 일반적으로 아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을 좀 더 깊게 관찰해 보면, 그 뉘앙스와 사용범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

원(冤)의 의미는 외부의 압력에 극복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자기발생적인 능동적(能動的) 원(冤), 자신의 진실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오해나 누명 또는 욕심 등의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수동적(受動的) 원(冤), 자기발생적이거나 외부적 요인에서 오는 원(冤)을 유발한 대상에 대한 미움과 그에 따르는 복수심을 갖는 공격적인 원(冤)으로 구별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원(冤)은 마음속에 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인 한(恨),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분노가 밖으로 표출된 원(怨) 그리고 남을 못되게 하여 원한을 맺게 하는 척(慝) 등, 이 모든 용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중심으로 다른 시각에서 원(冤)의 의미를 조명해 보면, 『전경』에는 원(冤, 怨)과 원한(冤恨, 怨恨)이라는 용어가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어서 한자(漢字)로 표현할 때 ‘원(冤)’인지 ‘원(怨)’인지, ‘원한(冤恨)’인지 ‘원한(怨恨)’인지 정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원(冤)과 원(怨)을 구별할 수 있는 단서를 『전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전경』에 원이 ‘冤’으로 명시된 경우는 두 번 있는데, 그 첫번째는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⁶⁰⁾는 구절속에 들어 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원(冤)의 역사의 첫 장’에서 원은 ‘冤’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단주의 원’, ‘원의 뿌리’, ‘원의 종자’에서 원은 한글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한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때의 원도 한자(漢字)로 ‘怨’이 아닌 ‘冤’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경』에 원이 원(冤)으로 명시된 또 하나는 “김 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⁶¹⁾라는 구절속에 있다. 여기서 진묵은 인간

60) 『전경』, 공사 3장 4절 (이하 인용문에 굵게 표시된 부분은 논자에 의한 것임)

61) 『전경』, 권지 2장 37절

(人間)이 아닌 신명(神明)으로서 천계(天界)에 속하기 때문에 원을 한자로 ‘冤’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아서 품은 원은 ‘怨’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나 사후(死後)의 세계에서 품은 원은 ‘怨’이 아닌 ‘冤’으로 표현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원(怨)과 한(恨)이 결합하여 ‘원한(怨恨)’이라는 용어로 사용될 때 그 범위는 확장된다. 이를테면 “한 사람의 품은 원한으로 능히 천지의 기운이 막힐 수 있느니라”⁶²⁾,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⁶³⁾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⁶⁴⁾에서 알 수 있듯이, 원한(怨恨)이라는 용어는 ‘冤’처럼 인간(人間), 신명(神明), 삼계(三界) 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冤=怨恨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이렇게 볼 때 원(冤)은 원한(怨恨)이라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용어인 원한(冤恨)은 원한(怨恨)보다 뉘앙스가 강할 뿐, 그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고 사료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원(怨)은 보복감정(報復感情)이 수반된 적극적(積極的)이고 가학적(加虐的)인 반면에, 한(恨)은 체념상태(諦念狀態)에서 오는 소극적(消極的)이고 자학적(自虐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원(怨)은 인간중심적인 감정상태로서 그 사용범위가 인간에게만 국한(局限)되지만, 원(冤)은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에 적용된다. 이것은 대순사상의 대표적인 용어 중의 하나인 ‘해원(解冤)’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때 원한을 풀어야 하는 대상은 인간 뿐만 아니라 삼계(三界) 전체이기 때문에 ‘冤’(怨이 아닌)을 사용한 것이다. 또 척(慼)은 주체(主體)에 대한 객체(客體)의 원한을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나에게 대한 남의 원한을 말한다. 이 척(慼)이란 용어도 인간 뿐만 아니라 삼계(三界) 전체에 적용되지만,⁶⁵⁾ 주체에 대한 객체의 원한과 객체에 대한 주체의 원한을 모두 의미하는 원(冤)의 범주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원(冤)은 원(怨), 한(恨), 척(慼)의 함축적(含蓄的)이고 포괄적(包括的)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원(冤)과 유사한 용어로서 원

62) 『전경』, 교법 1장 31절

63) 『전경』, 공사 1장 29절

64) 『전경』, 공사 1장 4절

65) 『전경』, 공사 2장 4절 참조

한(怨恨)과 원한(冤恨)이 있는데, 이 양자(兩者)사이에는 뒤앙스에서 후자(後者)가 강할 뿐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2. 冤의 원인

대순사상은 삼계(三界)에 쌓인 '원(冤)'을 풀어 상극(相克)을 상생(相生)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대순사상은 기성종교와는 달리 인간이 진멸지경에 이른 원인이 인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의 상극(相克)에 의한 원한에 있다고 보고 있다.⁶⁶⁾ 또 대순사상에서는 요(堯)임금의 아들 단주(丹朱)가 품은 원이 인류 최초의 원(冤)이라고 밝힘으로써 원의 역사성(歷史性)이나 그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⁶⁷⁾ 그래서 이 장(章)에서는 단주의 원으로부터 인간의 긴 역사만큼이나 쌓이고 맺혀온 수 많은 원(冤)의 원인과 현재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원(冤)의 원인을 천·지계(天·地界)와 인간사(人間事)로 구분해 보았다.

천(天)·지계(地界)의 원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대순사상에서 원(冤)은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개념이 아니라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된다. 그러면 먼저 천(天)·지계(地界)의 원의 원인과 포원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늘도 묵은 하늘이 있는가 하면 밝은 하늘이 있고, 땅도 기름진 땅이 있는가 하면 거칠은 땅이 있고, 날도 장마가 있는가 하면 가문 날도 있고, 바람도 순풍(順風)이 있는가 하면 역풍(逆風)이 있고, 때도 추운 때가 있는가 하면 더운 때가 있다.⁶⁸⁾ 또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음으로써 하늘과 땅사이에 시비(是非)가 일어나 원(冤)이 발생하게 되었다.⁶⁹⁾ 이러한 원(冤)의 원인은 상극(相克)에 있으며, 상극이 표출되는 원인은 음양(陰陽)의 부조화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생물로 분류되는 것까지도 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순사상(大巡思想)의 입장이다.

한편 신(神, 神明, 神將, 鬼神 등)에게도 원(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천

66) 『전경』, 공사 1장 3절 참조

67) 『전경』, 공사 3장 4절 참조

68) 『전경』, 교법 3장 6절 참조

69) 『전경』, 교법 1장 62절 참조

신(中天神)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라서 황천신(黃泉神)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 먹고 왔기에 원을 품고 있었고⁷⁰⁾, 서양인 이마두(利馬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나 유교의 폐습으로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그는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므로써 신명들 상호간에 원을 풀어 주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원했던 세상을 열지 못하여 원이 쌓이게 되었다.⁷¹⁾ 또한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서 인간세상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그를 시기한 김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케 하였다.⁷²⁾ 이 이외에도 인간세상에서 뜻을 펼치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서도 그 원을 품고 있으며, 인간세상에서 인간들끼리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천상계(天上界)에 있는 선령신(先靈神)들사이에 불화를 일으켜 서로 원을 맺히게도 한다.

다음은 인간사의 원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심리적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략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원인(個人的 原因); 자신의 실수나 무능력에서 발생하는 원(冤)을 말한다. 이 경우는 사회적인 제도나 여타의 제약과는 무관하며, 후회(後悔)나 반성(反省), 단념(斷念)이나 체념(諦念) 등의 감정이 수반된 소극적(消極的)·자학적(自虐的)·비대상지향적(非對象指向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속성상 한(恨)에 속한다. 이를테면 원했던 일이 어떠한 억압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실수나 능력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살아생전 불효하던 자식이 부모의 사후(死後)에 이를 후회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원인(社會的 原因); 사회제도의 제약이나 사회적 현실로 말미암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을 때 생기는 원(冤)이다. 이 경우는 불평등, 억압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분노(忿怒)나 증오(憎惡), 적개심(敵愾心)이나 보복(報復) 등의 감정이 수반된 적극적(積極的)·가혹적(加虐的)·대상지향적(對象指向的)인 특성을 가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怨)의 속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70) 『전경』, 공사 1장 29절 참조

71)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72) 『전경』, 권지 2장 37절 참조

반상(班常)의 구별, 적서(嫡庶)의 차별, 남존여비(男尊女卑), 지배계급(支配階級)의 피지배계급(被支配階級)에 대한 억압(抑壓), 인종차별(人種差別) 등을 들 수 있다. 세재, 복합적 원인(複合的 原因, 개인적 또는 사회적 원인); 원(冤) 발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로써 막연히 타자(他者)와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가 현격히 차이가 날 때, 그 발생원인이 개인적(個人的)인지 사회적(社會的)인지를 뚜렷이 인식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을 말한다. 이 경우는 가난하다든가, 자식이 잘못되었다든가 등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원(冤) 발생원인이 개인적 원인에 가까울수록 상대방에 대한 보복심리(報復心理)가 약하고, 사회적 원인에 가까울수록 그 심리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冤의 극복

인류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물질문명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발생하는 참혹한 재앙(災殃)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인류사회는 인간이나 집단, 국가나 민족사이에 제각기 사상이 달라서 갈등(葛藤)과 반목(反目)이 만연되어 있고, 천·지·인 삼계(三界)는 상통(相通)하지 못하여 상극(相克)의 원리에 지배되므로써 파멸로 치닫고 있다.⁷³⁾ 그래서 상제께서는 인류구원을 위해서는 해원(解冤)으로써 만고의 신명(神明)을 조화하고 천지도수(天地度數)를 조정해야만 한다고 하셨다.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천지는 개벽(開闢)되고 지상선경(地上仙境)의 세계가 이룩되기 때문이다.⁷⁴⁾ 이렇게 볼 때, 해원(解冤)은 상극(相克)의 세계를 상생(相生)의 세계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모든 공사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곧 해원(解冤)은 상생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실천윤리적(實踐倫理的) 도덕덕목(道德德目)으로서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기본사상(基本思想)이자 핵심사상(核心思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원상생(解冤相生)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자. 앞서 밝힌대로, 원(冤)은 천(天)·지(地)·인

73) 『전경』, 예시 8절 참조

74) 『전경』, 공사 3장 5절 참조

(人) 삼계(三界)에 모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원(冤)을 극복한다는 것은 삼계 전체를 해원(解冤)한다는 의미이다. 또 원(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인간 능력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인간한계를 초월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前者)의 경우는 인간차원에서 원(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인간 상호간(人間相互間)에 맺힌 원을 풀고 상생을 위해 실천적(實踐的)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후자(後者)의 경우는 절대자의 권능에 의해서만 실현가능한 방법을 의미한다. 전자(前者)의 경우는 수도론적(修道論的)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후자(後者)의 경우에 속하는 상제의 권능에 의한 해원공사(解冤公事)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해원공사 중 천(天)·지계(地界)에 관련된 내용을 보기로 하자. 인류 최초의 원(冤)은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로부터 기인한다. 이로부터 원(冤)의 역사가 시작되어 세대의 추이(推移)에 따라 원의 종자가 곳곳에 확산되어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자 상제께서 인류를 파멸에서 구원하고자 해원공사를 행하셨다.⁷⁵⁾ 나무의 뿌리를 제거하면 그 가지나 잎이 말라 죽듯이, 상제께서는 원초적 원의 뿌리인 단주(丹朱)의 원을 회문산 오선위기혈에 붙여 풀어줌으로써 자연히 그 동안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게 되었다.⁷⁶⁾

또한 상제께서는 지금은 신명해원시대(神明解冤時代)라고 천명하시고,⁷⁷⁾ 명부(冥府)의 착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冥府公事)가 종결되면 온 세상일이 해결된다고 하셨다.⁷⁸⁾ 이것은 천계(天界)와 인간계(人間界)사이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해 주는 내용이다. 상제께서 가장 먼저 처결하신 공사가 바로 이 명부공사(冥府公事)인데, 이는 삼계가 착란하는 근본적 이유가 명부의 착란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고 명부에서의 상극도수(相克度數)를 뜯어 고쳐 비겁에 쌓인 신명과 인간들을 서로 상생케 하셨다.⁷⁹⁾ 이 공사를 행하므로써 일체의 아포신이 천상으로 올라가서 땅에 굶주림이 사라지고 그 신들의 재해가 없어지게 되었다.⁸⁰⁾ 곧 아포신의 원한

75) 『전경』, 공사 3장 4절 참조
 76) 『전경』, 공사 2장 3절·3장 6절 참조
 77) 『전경』, 교운 1장 20절 참조
 78) 『전경』, 공사 1장 5절 참조
 79) 『전경』, 예시 10절 참조

을 풀어 주신 것이다. 또 상제께서는 혼란한 세상을 바로 잡으려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의 신명(神明)인 만고·역신(逆神)을 해원하여 모두 성수(星宿)로 붙여 보내시고,⁸¹⁾ 후사를 못두고 죽은 사람의 신명인 중천신(中天神)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黃泉神)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 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중천신(中天神)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셨다.⁸²⁾

또한 전명숙이 거사할 때 평등사상(平等思想)을 바탕으로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상제께서 그 마음을 높이 평가하여 그가 죽은 후 그를 조선명부(朝鮮冥府)로, 아울러 최수운을 일본명부(日本冥府)로 임명하여,⁸³⁾ 이들의 원을 풀어 주시기 위해 공사를 처결하셨다.⁸⁴⁾ 상제께서는 전명숙을 따라 민중운동에 동참한 동학도들의 원한도 풀어 주시기 위해서 역도를 조정하는 공사에 착수하셨다.⁸⁵⁾ 또 상제께서는 김 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힘썼던 진묵(震默)의 신명도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셨다.⁸⁶⁾ 이 이외에도 최익현(崔益鉉)과 박 영효(朴泳孝)의 원한도 풀어 주셨다.⁸⁷⁾

다음은 인간계(人間界)의 해원공사(解冤公事)에 대한 내용을 보기로 하자. 『전경』에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좋은 시대가 오리라”⁸⁸⁾,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⁸⁹⁾, 또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⁹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80) 『전경』, 예시 11절 참조

81) 『전경』, 교법 3장 6절 참조

82) 『전경』, 공사 1장 29절 참조

83) 『전경』, 공사 1장 7절, 교법 1장 2절 참조

84) 『전경』, 공사 3장 2절 참조

85) 『전경』, 공사 2장 19절 참조

86) 『전경』, 권지 2장 37절 참조

87) 『전경』, 공사 2장 22절 참조

88) 『전경』, 교법 1장 9절

89) 『전경』, 교법 1장 10절

그대로 반영된 내용이다. 공사가 처결될 때의 사회적 상황은 상제께서 “유는 부유(腐儒)”⁹¹⁾라고 하셨듯이, 유교중심(儒敎中心)의 사상에서 유래된 첨예화된 계층의 차별화(差別化)로 말미암아 그 병폐(病幣)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유교는 인륜적(人倫的) 질서(秩序)를 중시한 결과 양반, 중서, 상인, 천인, 노비의 계급적(階級的) 구별, 적서(嫡庶)의 구별로 관리의 등용 제한, 직업의 선택이나 혼인, 거주 자유까지도 제한을 받았고 천인 이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⁹²⁾ 특히 유교도덕(儒敎道德)은 비천자(卑賤者)가 존귀자(尊貴者)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인간 관계는 귀천(貴賤)과 존비(尊卑)의 관계에서 생각되고, 이에 관한 질서가 인간관계의 질서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교 질서는 존귀자, 권력자의 지위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고, 그들의 요구를 당연히 하는 것으로 효(孝)·충(忠) 곧 아버지와 임금, 자식과 신하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었다.⁹³⁾ 이를 악용하여 사대부(士大夫)와 관원(官員)들은 민중을 경제적 수탈의 대상으로 여겨 왔으며, 이로 인해 빈부(貧富)의 차(差)는 더욱 심화되어 백성들은 자연히 관료나 가진자를 원한의 대상으로 삼았다. 상제께서는 이러한 모든 원한을 풀어 주시고 “지금은 해원시대”⁹⁴⁾라고 선언하시고, 유교(儒敎)의 폐습에 따른 병폐를 없애고 인간들의 원한을 풀어 주셨다.

한편 유교(儒敎)는 남성위주(男性爲主)의 경제체제(經濟體制)를 바탕으로 남성중심의 윤리체계(倫理體系)를 확립시켜 부계 친족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갈등(葛藤)을 방지하기 위해 서열적(序列的) 인간관계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여성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기 보다는 남성의 성적 대상이나 대(代)를 이어주는 후손을 위한 생산적 도구에 불과했다. 남성본위(男性本位)의 이혼, 과부의 재가금지(再嫁禁止) 등의 남존여비(男尊女卑)에서 비롯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횡포는 여성으로 하여금 수많은 원한을 맺게 했다. 이에 상제께서는 남녀평등(男女平等)에 입각하여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여성들에게 맞는 원한을 풀어 주셨다.⁹⁵⁾

90) 『전경』, 교운 1장 32절

91) 『전경』, 교운 1장 6절

92) 문순태, 「恨이란 무엇인가」, 「恨의 이야기」, 153쪽

93) 尹泰林, 「韓國人」, 玄岩社, 서울 1970, 134쪽

94) 『전경』, 교법 1장 9절

V. 도통진경

1. 도(道)의 의미와 특성

(1) 유·불·선의 도

도(道)는 본래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였으나 여기에 추상적(抽象的)인 해석이 가미되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도리(道理)나 원칙(原則) 등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도(道)는 우주운행(宇宙運行)의 법칙(法則)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동양인(東洋人)의 정신적(精神的)·물질적(物質的)인 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먼저 유가(儒家)에서 도(道)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역(周易)』에는 “한번 양하고 한번 음하는 것이 도다”⁹⁶⁾고 하였다. 이것은 음(陰)과 양(陽)이 고정불변(固定不變)하는 것이 아니라 음(陰)이 양(陽)이 되기도 하고 양(陽)이 음(陰)되기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도(道)는 음양을 존재의 기초로 하여 음양이 번갈아 변화하고 운동하는 법칙이다. 이 법칙은 천지만물의 운동변화 과정 중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천지는 하나의 커다란 음양으로, 음양의 교합운동은 천지만물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변화를 촉진시켜 이룬다.⁹⁷⁾ 한마디로 도(道)란 우주만물이 생성(生成)·발전(發展)·소멸(消滅)하는 원리와 법칙을 말한다. 우주(宇宙)가 우주(宇宙)된 본연(本然)의 법칙(法則)인 것이다. 이를테면 음양(陰陽)이 합덕(合德)하여 낮과 밤이 교차하고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과 1년 12달, 24절후가 순환하는 법칙을 말한다.

유가(儒家)에서는 도(道)에 대한 우주의 생성론적 관점 외에 도덕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중용(中庸)』에는 “천성 그대로 행하는 것을 도”⁹⁸⁾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천성(天性)이라함은 양심(良心) 곧 청정무구

95) 『전경』, 공사 1장 32절·2장 17절, 교법 1장 46절·68절·2장 40절·57절, 권지 1장 17절 참조

96) 『周易』繫辭上傳
“一陰一陽之謂道”

97) 『道』, 53-54쪽 참조

98) 『中庸』首章
“率性之謂道”

(淸淨無垢)한 인간의 본성(本性)을 의미한다. 인간의 본성(本性)은 본래 순수(純粹)하였지만 인간의 욕심(慾心)과 나약(懦弱)함, 인위적(人爲的)인 행위(行爲) 때문에 혼탁(混濁)해져 그 본성(本性)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본성(本性)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교적(儒教的)인 관점에서 볼 때, 도(道)는 인간본성(人間本性)의 근원으로서 인간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道)를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교(儒教)에서는 도(道)의 도덕적(道德的)인 면을 강조하여 일종의 생활규범(生活規範)이나 인간의 가치기준(價值基準) 등으로 삼았다.

도가(道家)에서 보는 도(道)의 관점을 살펴보자. 노자(老子)는 도(道)란 만물의 본체이자 본원으로 천지만물은 도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도는 허허롭고 형체가 없으나 그 작용은 무궁무진하여, 얼마나 심원한지 마치 만물의 종주와 같다”⁹⁹⁾고 하였고, 또 “도는 만물을 생장시키고, 덕은 만물을 번식시키며, 만물은 각종 형태로 드러나고, 환경은 그것들을 성장시킨다. 그러므로 만물에는 도를 존송하고 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다”¹⁰⁰⁾고 했다. 공허하면서도 형태가 없는 도는 만물이 의지하여 존재하는 근거이며, 또 만물을 파생시키는 본원으로 천지만물은 모두 도로 인하여 변화·발전하여 나오는데, 그 과정은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¹⁰¹⁾ 이른바 하나라는 것은 천지만물이 형성하기 이전에 혼돈하여 분화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하나로부터 둘이 생겨난다는 것은, 곧 천지 혹은 음양을 생성하는 것이다. 천지음양이 교합하여 셋 즉, 만물을 낳게 하는 허허로운 기운인 충기(沖氣)를 낳은 연후에 만물을 생성케 한다. 이렇게 도는 곧 만물이 생성되는 본체 혹은 본원인데, 만물은 모두 도에서 통일된다. 또한 노자(老子)의 도는 인생도덕 수양의 최고 경지를 의미한다.¹⁰²⁾ “큰 덕의 모습은 도를 따라 나온다.”¹⁰³⁾ 사람의 도덕

99) 老子, 『道德經』 제 4장

“道沖而用之 惑不盈 淵兮似萬物之宗”

100) 앞의 책, 제 51장

“道生之 德畜之 物形之 勢成之 是以萬物莫不尊道而貴德”

101) 앞의 책, 제 42장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102) 『道』, 61-62쪽 참조

103) 『道德經』, 제 21장

수양은 도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고, 도를 그 내용으로 하며, 도를 체득하여 실행함을 최고 경지로 삼는다. 도는 자연스럽고 작위가 없는 것이므로 인간의 도덕수양도 자연스럽고 순박함으로 되돌아감을 목표로 삼아,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수양을 통하여 도를 지닌 성인이 되려고 해야 한다. 노자는 성인은 우직하고 순박하고 순진하며, 겸허하고 청정하여 욕심이 없고, 자애롭고 검소하며, 만물을 생성케 하나 사사로이 소유하지 않고, 베풀기는 하나 은혜 갚기를 바라지 않고, 아래에 처하고 나중에 취하며, 일을 이루면 물러나고, 모든 것을 스스로 그러함에 맡기고, 도를 매우 잘 실행한다고 생각했다.¹⁰⁴⁾

장자(莊子)는 노자(老子)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는 도란 천지만물을 생성하는 동시에 천지만물의 운동변화를 지배하며, 천지만물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도는 만물이 말미암는 바이니 모든 사물이 그것을 잃으면 죽고 그것을 얻으면 생존하며, 일을 함에 그것을 거역하면 실패하고 그것에 순종하면 성공한다”¹⁰⁵⁾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도는 만물이 운동변화하면서 지키고 따라야 할 법칙이다. 만물이 도의 변화를 따르면 성장하고 도를 잃으면 죽어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도를 따라 행하면 성공하고 도를 거슬러 망령되게 행동하면 곧 실패한다. 도는 법칙으로서, 만물의 발전과정 중에 존재한다. 음양의 변화와 사계절의 순환은 모두 도의 표현형식이다. 천지에는 천지변화의 도가 있고, 사람에게에는 사람의 변화의 도가 있어 각기 그 자신의 운동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의 작용은 내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없고, 사물변화의 현상과 결과의 분석을 통해서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인류사회를 포함한 천지만물은 모두 스스로 생성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스스로 생성·변화하는 과정 중에 항상 도가 일관하고 있다.¹⁰⁶⁾ 또한 장자는 인간도 기(氣)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람의 출생은 기가 모이고 쌓여 이루어진다. 기가

“孔德之容 惟道是從”

104) 「道」, 63-64쪽 참조

105) 「莊子」, 漁父

“道者 萬物之所由也 庶物失之者死 得之者生 爲事逆之則敗 順之則成”

106) 「道」, 70쪽 참조

모이면 생명을 낳게 되고 흩어지면 죽는다”¹⁰⁷⁾라 하여 기가 모이면 사람이 태어날 수 있고, 기가 분산되면 사람이 죽는다. 기는 도에서 생기기 때문에 사람도 최종적으로는 도의 산물이다. 또 그는 “정신은 도에서 생겨난다”¹⁰⁸⁾고 하여 도는 인간의 본체일 뿐만 아니라 인간 최고의 정신적 경지로 보았다.¹⁰⁹⁾

결국 도가(道家)에서는 도(道)라는 것은 천지가 있기 전에 존재했던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 도법자연(道法自然) 즉, 도의 본성이 곧 자연(自然)이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도(道)에서 비롯된 존재로서 도(道)에로 회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本性)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도가(道家)에서의 도(道)는 우주만유(宇宙萬有)의 본체(本體)이면서 형태지을 수 없는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실재(實在)로서의 도(道)를 의미하며, 인생(人生)의 모든 행위(行爲)와 자연계(自然界)의 섭리(攝理), 이 모든 것들이 도(道)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불교(佛敎)에서 보는 도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불교의 경우 진리(眞理) 자체를 도(道)라고 보았다. 불교(佛敎)에서의 도(道)는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를 들 수 있다. 사성제(四聖諦)란 고제(苦諦)·집제(集諦)·멸제(滅諦)·도제(道諦)를 일컫는 것으로서, 인생고(人生苦)를 초극해서 궁극적인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생존의 본질은 고(苦)이고 이 고(苦)의 원인은 갈애(渴愛)에 있다고 하는 것이니, 곧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어 항상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이 집제(集諦)의 의미이다. 멸제(滅諦)란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이니 곧 열반(涅槃)의 세계이다. 그렇다면 열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도제(道諦)이다. 도제란 인간고(人間苦)를 없애는 길로서 팔정도(八正道)가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 인간은 이 8가지의 도(道)에 의해서만 열반(涅槃)이라는 이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불교의 종교적(宗敎的)인 행위(行爲) 뿐만 아니라 도덕적(道德的) 실천(實踐)을 의미하기도 한다. 팔정도(八正道)

107) 『莊子』, 知北遊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

108) 앞의 책, 같은 곳

“精神生於道”

109) 『道』, 72-73쪽 참조

란 올바른 생각(正見)·올바른 사유(正思)·올바른 말(正語)·올바른 업(正業)·올바른 생활 수단(正命)·올바른 신념(正念)·올바른 노력(正精進)·올바른 마음 가짐(正定)을 일컫는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유(儒)·불(佛)·선도(仙道)에서 도(道)를 설명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그 공통점(共通點)은 도(道)를 회복한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간주하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도(道)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도(道)와 하나가 됨으로써 현실의 불공평(不公平)하고 불합리(不合理)한 점을 극복하여 절대불변(絕對不變)의 진리 속에서 참다운 자유(自由)와 영생(永生)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2) 대순사상의 도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 도(道)를 보는 관점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아주 유사하다. 그렇다고 대순사상(大巡思想)이 유(儒)·불(佛)·선도(仙道)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경』에는 “천지(天地)의 허무(虛無)의 기운을 받아 선(仙)이 포태(胞胎)하고, 천지의 적멸(寂滅)의 기운을 받아 불(佛)이 길러내고, 천지의 이조(以詔)의 기운을 받아 유(儒)가 욕대(浴帶)한다. 관왕(冠旺)은 허무, 적멸, 이조를 통솔한다”¹¹⁰⁾고 설명하고 있다. 대순사상(大巡思想)의 도(道)는 관왕(冠旺)의 도(道)를 의미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관왕(冠旺)은 유·불·선도의 기운인 허무(虛無)·적멸(寂滅)·이조(以詔)를 통솔하여 완성(完成)으로 이끈다. 이렇게 볼 때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 말하는 도(道)는 유·불·선도의 정수(精髓)를 뽑아 창조적(創造的)으로 완성한 도(道)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대순사상(大巡思想)에 나타난 도(道)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대순지침』은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¹¹¹⁾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도(道)를 음양(陰陽)으로 간주하므로써 우주

110) 『전경』, 교운 1장 66절

“受天地之虛無仙之胞胎 受天地之寂滅佛之養生 受天地之以詔儒之浴帶 冠旺 兜率虛無寂滅以詔”

111) 『대순지침』, 18쪽

만물(宇宙萬物)의 근원을 도(道)로 본다는 점이다. 인간도 이 우주본연(宇宙本然)의 법칙(法則)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 천성(天性)인 인간 본성(本性)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전경』에는 “원형이정은 천지의 도(道)고 인의예지는 사람과 신의 도(道)다”¹¹²⁾라고 밝히고 있다. 원형이정은 천도(天道)의 사덕(四德)이다. 계절(季節)로 보면 춘하추동(春夏秋冬)이요, 방위(方位)로 보면 동서남북(東西南北)이요, 오행(五行)으로 보면 목화금수(木火金水)요, 사람과 신에게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이다. 봄은 만물을 생(生)하므로 원(元)이요, 여름은 무성하게 길러 풍부함으로 형(亨)이요, 가을은 결실과 추수의 계절이므로 이(利)요, 겨울은 추위를 견디고 봄을 기다려야 하므로 정(貞)이다. 이것이 만물이 생장수장(生長收藏)하는 이치이다. 결과적으로 도(道)란 상제께서 밝혀 놓으신 우주의 이치(理致)이며, 하늘의 명(命)으로서 인간이 반드시 취(取)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대순지침』에서는 도(道)의 성질에 대해서 “도(道)란 부단불식(不斷不息)하여 무형무적(無形無跡)하고, 무성무취(無聲無臭)하지만 공명정대하여 무위무과(無爲無假)하며, 무편무사하여 두과지리(豆瓜之理)와 같다”¹¹³⁾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도(道)란 끊임이나 쉬이 없고 그 형태(形態)나 자취가 없으며, 소리도 냄새도 없다. 또 도(道)란 거짓이 없고 편벽(偏僻)됨이나 사사(私事)로움이 없다. 곧 도(道)는 콩심는데 콩나고 팥심는데 팥나는 진리(眞理)와 같다는 의미이다. 소옹(邵雍)도 “도는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볼 수도 없는 것이다”¹¹⁴⁾라고 하여, 도는 경험과 감각을 초월한 것이며 영원한 것으로 생각했다. 도(道)란 마음을 두지 않으면 살펴도 보이지 아니하며, 귀 기울여도 들리지 아니하며, 먹어도 그 맛을 알 수 없고 만져도 느낄 수 없다.¹¹⁵⁾ 그러기 때문에 도(道)를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

112) 『전경』, 교운 2장 41절, 運合呪

“元亨利貞天地之道 仁義禮智人神之道”

113) 『대순지침』, 91-92쪽

114) 邵雍, 『觀物』外篇 下

“道無聲無形不可得而見者也”

115) 『大學』正心修身 참조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고 한곳에 집중(執中)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 도를 신도(神道)로 규정한 것은 특징적(特徵的)이다. 『대순지침』에 “우리의 도(道)는 신도(神道)임을 누차 말하였으나 깨닫지 못하는 신도와 인위적(人爲的)인 사도(邪道)를 구별하지 못한 까닭이다”¹¹⁶⁾고 했다. 본래 우주의 이치는 도(道)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며, 도(道)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인위적(人爲的)인 사도(邪道)란 인간의 욕심(慾心)과 편견(偏見)에 의해 생긴 소산물(所產物)이다. 사도(邪道)는 어느 정도는 진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많은 부분이 변질되어 하늘과 땅의 이치를 거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邪道)는 인간이 인간본래의 무욕청정(無慾淸淨)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는 장애물(障礙物)으로써 인간의 판단력(判斷力)을 약화시키고 우주의 질서마저 혼란스럽게 한다. 반면에 신도(神道)란 인위(人爲)가 아닌 신위(神爲)의 차원에서 인간의 본성을 되찾게 해주고 우주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

2. 도통의 방법

도통(道通)이란 일반적으로 ‘도에 통한다’는 말로써, 도통을 하면 천지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도통의 의미와 상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무자기(無自欺)를 근본(根本)으로 하여 인간(人間) 본래(本來)의 청정무구(淸淨無垢)한 본성(本性)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닦고 성품을 연마(鍊磨)하여 자기 자신의 기질(氣質)을 단련(鍛鍊)하여 대순진리(大巡眞理)의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을 체인체득(體認體得)하기 위하여 힘써 닦아 정성(精誠)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도가 곧 나(我卽道)요 내가 곧 도(道卽我)라는 경지를 바르게 깨달아 환하게 도(道)에 통하게 되면 삼계(三界)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고 우주 전체의 이치를 온갖 정성(精誠)을 다하여 깨달음으로써 어떤 것이든 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영통(靈通) 또는 도통(道通)

이라고 한다.¹¹⁷⁾

대순사상에서는 도통(道通)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수도(修道)를 제시하고 있다. 도통은 도인들 자신의 수도 여하에 달려 있는데,¹¹⁸⁾ 수도란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없다.¹¹⁹⁾ 즉, 수도의 목적은 도통에 있으며, 수도를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는 도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¹²⁰⁾ 또한 도통은 선후의 차등이 없고 오로지 바르게 닦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¹²¹⁾ 도통이란 어느 누가 물품을 수수하듯이 주고 받는 것이 아니다.¹²²⁾ 결국 도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¹²³⁾

다음은 도통의 공평성(公平性)에 대해서 살펴보자. 도통(道通)을 내려주는 것은 상제의 판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제의 주재하에 유·불·선 도통신(道通神)들이 모여 공평하게 판단한다.¹²⁴⁾ 도통을 내려줄 때, 유·불·선 도통신(道通神) 뿐만이 아니라 각 성(姓)의 선령신(先靈神)도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게 된다. 만일 상제께서 남의 사정을 보아 임의로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두 편벽됨을 힐난할 것이다. 그래서 도통은 각자 닦은 바에 따라 열리게 되는데,¹²⁵⁾ 이전에는 도통을 하려는 자가 음해(陰害)를 받아 도통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차후에는 오히려 도통을 받으려는 자를 음해(陰害)하려고 하는 자가 해를 입을 것이라고 한다.¹²⁶⁾ 공자(孔子)는 72명, 석가(釋迦)는 500명만을 도통(道通)케 하여 도통을 받지 못한 자가 원한(怨恨)을 품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선천(先天)의 한계성(限界性)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상제께서神明계(神明界) 공사(公事)를 통해 상제의 말씀에 따라 진정으로 도(道)를 닦는 자는 누구나 도통

117) 「대순진리회요람」, 9쪽 참조

118) 「대순지침」, 37쪽 참조

119) 「대순지침」, 37쪽 참조

120) 「대순지침」, 37쪽 참조

121) 「대순지침」, 37-38쪽 참조

122) 「대순지침」, 38쪽 참조

123) 「대순지침」, 38쪽 참조

124) 「전경」, 교운 1장 41절 참조

125) 「전경」, 교운 1장 33절

126) 「전경」, 교운 1장 40절 참조

(道通)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¹²⁷⁾

또 상제께서는 도통할 수 있는 구체적(具體的)인 방법으로 서전서문(書傳序文)과 『대학(大學)』을 많이 읽도록 권했는데, 실제로 상제의 부친께서는 상제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읽지는 못하였으나 끊임없이 읽었으므로 지혜가 밝아져 마을 사람들의 화난을 덜어준 일이 많았다고 전해진다.¹²⁸⁾ 그렇다고 서전서문(書傳序文)이나 『대학』만을 읽으므로써 도통(道通)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통은 상제의 진리를 믿고 따르며 정성을 다하여 수도(修道)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도통(道通)이란 청정무구(淸淨無垢)한 인간의 본성(本性)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본질적(本質的)으로 도를 닦는 마음 그 자체는 순수(純粹)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대학』이나 서전서문(書傳序文)에 나와 있는 의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제의 진리를 믿고 따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글을 많이 읽다 보면 도(道)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도통진경의 실상

도통진경(道通眞境)이란 ‘도(道)를 통한 참다운 경지(境地)’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대순사상(大巡思想)이 목표로 하는 이상세계(理想世界)를 말한다. 도통진경(道通眞境), 지상신선세계(地上神仙世界), 후천선경세계(後天仙境世界) 등은 상황에 따라 그 표현이 다를 뿐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도통진경(道通眞境)은 수도(修道)를 통한 도통이, 지상신선세계(地上神仙世界)는 도교적(道敎的)인 표현으로서 사후(死後)가 아닌 현실세계(現實世界)에 이룩되는 점이, 그리고 후천선경세계(後天仙境世界)는 상극(相克)이 지배했던 선천세계(先天世界)와 상생(相生)이 이루어진 후천세계(後天世界)라는 시간적(時間的)인 의미가 강조된 것이다. 그래서 도통(道通)으로 현실세계에 이룩된 상생의 세계가 바로 도통진경(道通眞境)이고 지상신선세계(地上神仙世界)이며 후천선경세계(後天仙境世界)인 것이다.

대순사상(大巡思想)에는 4강령(四綱領)이 있는데, 이 중 안심(安心)과 안신

127) 「전경」, 교운 1장 34절

128) 「전경」, 교법 2장 26절 참조

(安身)은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이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 대개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心)만 중히 여기고 몸(身)에 대해서는 등한시(等閑視)하지만, 실로 인간의 몸과 마음은 둘이면서도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이다. 이상(理想)과 현실(現實)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상(理想)을 추구하되 현실(現實)에도 충실(忠實)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理致)인 것이다. 마음과 몸의 길,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길은 모두 하나의 도(道)에서 나온 두 길이라 할 수 있다.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¹²⁹⁾라고 했듯이, 신체(身體)의 활동인 말과 행실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동(行動) 기능(機能)을 주관(主管)하는 것은 마음이며, 마음의 현상(現象)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다. 바로 상제의 진리에 따라 마음과 몸이 진실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도통진경(道通眞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건인 것이다.

도통진경(道通眞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이상세계(理想世界)만을 추구하고 현실(現實)을 무시하거나 현실(現實)에 대해 소극적(消極的)이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현실세계(現實世界)에 충실(忠實)하고 적극적(積極的)으로 대처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상세계(理想世界)의 추구하고 현실세계(現實世界)에 대한 적극적(積極的)인 삶이 조화를 이룰 때,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이 실현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도통진경(道通眞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도통진경(道通眞境)이 실현된 후천세계(後天世界)의 실상에 대해서 『전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¹³⁰⁾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지내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

129) 『전경』, 교법 1장 11절

130) 『전경』, 예시 80절

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¹³¹⁾

인간이 원한(怨恨)을 품게 되는 원인은 반상(班常)의 구별, 적서(嫡庶)의 차별, 남존여비(男尊女卑), 빈부(貧富)의 격차, 지배계급(支配階級)의 피지배계급(被支配階級)의 억압, 종교탄압(宗教彈壓), 인종차별(人種差別) 등이다. 이러한 원한을 발생케 하는 원인들은 근본적(根本的)으로 인간이 타인(他人)이나 타집단(他集團)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경쟁(生存競爭)의 결과이다. 인간이 생존경쟁을 하는 것은 선천세계(先天世界)가 인간들을 만족시킬 만큼 물질적(物質的)·정신적(精神的)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여유(餘裕)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競爭)은 욕망(慾望)을 낳으며, 욕망은 또 다른 경쟁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악순환(惡循環)으로 현실세계(現實世界)는 시기(猜忌)와 질투(嫉妬), 반목(反目)과 투쟁(鬪爭)이 난무한 진멸지경(盡滅之境)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세계가 되면 인간은 물질적(物質的)·정신적(精神的)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衣)·식(食)·주(住)가 해결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이 모두 없어지면, 인간의 욕망은 자연히 사라지고 생존경쟁의 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특별히 가진자가 특권(特權)을 누리는 것도 아니며, 인간 누구나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원(願)하는 만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원한(怨恨)의 종말(終末)을 의미한다. 인간(人間)과 인간(人間), 집단(集團)과 집단(集團), 국가(國家)와 국가(國家)사이에 원한(怨恨)을 가질래야 가질 것이 없는 세계, 이것이 도통진경(道通眞境)의 후천선경세계(後天仙境世界)이며, 사후(死後)가 아닌 현실세계(現實世界)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상낙원(地上樂園)의 세계이다.

131) 『전경』, 예시 81절

V. 결론

우주는 인간만이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다. 우주는 인간에게 가시적(可視的)이건 불가시적(不可視的)이건 무수한 존재들이 인간과 함께 공존(共存)하고 공유(共有)하는 삶의 터전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주안에 있는 모든 존재 즉,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 종교와 사상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대순사상의 종지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은 삼계 전체에 적용되는 사상으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속에 있다. 이를테면 음양합덕은 음양의 조화와 상생을 의미하는 사상으로서 신과 인간을 음양의 관계로 보았을 때, 신인조화는 음양합덕의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양의 부조화에서 기인되는 포원과 상극적 상황이 음양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해원과 상생의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해원상생도 음양합덕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도통진경은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이 이루어진 결과로 표출되는 사상으로서 대순사상이 목표로 하는 세계이기도 하다.

그러면 앞서 살펴 본 내용을 간략해 보기로 하자. Ⅱ장 음양합덕(陰陽合德)에서는 음양사상과 덕사상과 분류하여 서술하였는데, 음양사상은 동양학의 주류를 이루는 사상으로 우주나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과 생성·소멸을 음양의 법칙에 설명하는 이론이다. 또 덕(德)은 천지음양이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공능(功能)을 가리키는 말이며, 도는 체(體)고 덕은 용(用)으로서 천지만물이 발전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결국 음양합덕은 음과 양의 이상적인 결합을 의미한다. 음양합덕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을 원리나 전제조건으로 하고 조화(調化), 평등(平等), 상생(相生)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Ⅲ장 신인조화(神人調化)에서는 신관(神觀), 신과 인간의 관계, 신인조화의 특징으로서 인존사상(人尊思想)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대순사상의 신관은 단일신적, 다신론적, 범신론적 성격을 지닌 복합적인 신관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명은 인간에 비해 초월적인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인격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처럼 해원의 대상이자 구제를 통해 완성되어야 할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래서 대순사상의 신관은 인간과의 관련성속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신과 인간은 음양의 관계로서, 각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 대립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를 세분하면, 신과 인간은 공재적(共在的)·음양적(陰陽的)·대대적(待對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인조화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인존사상은 인간을 단순히 존귀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삼계(三界) 중에서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인간상을 의미한다.

V장 도통진경에서는 도, 도통, 도통진경으로 분류하여 개개의 의미와 특성을 고찰 하였다. 도는 우주만상의 시원(始原)으로서 생성·변화의 법칙을 가리키며, 인간에게는 본성을 의미한다. 도통은 '도에 통한다'는 의미로서 우주본연의 상생의 법칙을 깨닫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통진경이란 '도를 통한 참다운 경지'를 뜻하며, 지상신선세계나 후천선경 세계와 표현만 다를 뿐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도통진경의 세계는 인간 사후(死後)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서 맞이하게 될 지상에서의 선경세계로서 전 인류에게 무한한 희망을 주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전경』,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9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4
『대순진리회요람』,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대순사상논총』 제 1·2·3·4·5집, 대순사상학술원, 포천 1997
『中庸』, 『周易』, 『大學』, 『書傳』
『荀子』
老子, 『道德經』
莊子, 『南華經』 · 『莊子』
周濂溪, 『太極圖說』
邵雍, 『觀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15·17·20·22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서울 1992
운평어문연구소 편, 『금성관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서울 1997
金勝東 編著, 『道教思想辭典』,釜山大學校出版部, 1996
김탁, 『증산교학』, 미래향문화, 서울 1992
서광선 엮음, 『恨의 이야기』, 청노루, 서울 1988
尹泰林, 『韓國人』, 玄岩社, 서울 1970
張立文(權瑚 譯), 『道』, 동문선, 서울 1995